

우수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는 과정에 대한 고찰

김 종 배*

〈요 약〉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일은 대학 또는 연구소에 종사하는 연구자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한 편의 논문을 준비하고 이를 게재하기까지 연구자는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과 시간을 투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원하던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본고는 논문의 준비단계부터 최종적으로 우수 학술지에 게재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각 과정별로 어떠한 일들이 행해지는가를 살펴보는데 이러한 고찰은 우수 학술지에의 게재 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된다. 본고는 이를 통해, 우수 학술지에의 게재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구자들이 어떠한 점에 치중을 두어야할지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 논문의 작성과 심사에 관련된 해외 석학의 주제 발표, 문헌 고찰, 그리고 필자의 개인적 경험, 즉 논문게재 신청자로서 또는 논문 심사자로서의 경험과 여러 학자들과의 대화 등은 본 고의 토대가 된다.

주제어 : 우수학술지, 연구주제의 선정, 논문게재 과정, 논문 심사, 신제품 개발과정

I. 서 론

연구자의 지적 호기심이나 개인적 성취욕구의 충족을 위해서건 또는 연구자가 처한 환경의 필요 (예: 취업, 재임용, 승진, 업적평가 등)에 의해서건 간에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일은 연구자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한 편의 논문을 준비하고 이를 게재하기까지에 연구자는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과 시간을 투여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원하던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며 심한 경우에는 아예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논문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제적인 최상위

학술지의 경우, 기각률(rejection rates)은 보통 90%를 상회하며, 평생 이러한 학술지에 자신의 논문을 게재하지 못하고 연구생활을 마감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본고는 논문의 준비단계부터 최종적으로 우수 학술지에 게재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각 과정별로 어떠한 일들이 행해지는가를 살펴보는데 이러한 고찰은 우수 학술지에의 게재 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된다. 본고는 이를 통해, 우수 학술지에의 게재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구자들이 어떠한 점에 치중을 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학술지에의 게재가능성 제고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반적 과정에 대한 검토는, 연구자들이 각 과정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도움으로써 이를

1) 단국대학교 경성대학 경영학부

통해 더 나은 논문 준비과정을 밝게 하고 결과적으로 좀 더 우수한 논문으로 결실을 맺게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본고는 우수 학술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논문 작성 및 게재과정을 살펴본다. 여기서 '우수' 학술지란 국내의 경우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를 의미하며 국제 학술지의 경우에는 SSCI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등급의 학술지를 의미한다 (참조: 한국학술진흥재단-www.krf.or.kr; Thomson ISI-www.isinet.com). 물론 논문을 준비하고 이를 게재하는 과정은 우수 학술지나 일반 학술지, 또는 국제나 국내 학술지에 관계없이 유사하다. 그러나 연구자와 심사자 공히 더 많은 공을 들이게 되는 우수 학술지에의 게재 과정에 대한 내용은, 여타 학술지에의 게재 과정에도 쉽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우수 학술지를 염두에 두고 서술한다.

본고는 마케팅 전공자를 염두에 두고 서술되고 있지만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다른 영역의 전공에도 적용된다. 이는 본고를 준비함에 있어서 다른 경영학 전공이나 일반 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쓰기에 대한 자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점에서 역으로 알 수 있다.

본고의 작성에는, 논문 작성 및 심사와 관련된 해외 석학의 주제 발표, 연구논문과 서적에 대한 고찰, 그리고 필자의 개인적 경험, 즉 논문게재 신청자로서 또는 논문의 심사자로서의 경험과 여러 학자들과의 개인적 면담 등이 바탕이 되었다.

II. 연구주제의 개발부터 투고까지의 과정

한 편의 논문은 연구주제의 선택, 연구계획안의 마련 및 검토, 실제 논문쓰기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고 이렇게 완성된 논문은 학술지에 투고됨으로써 잠시 일단락된다. 아래에서는 이들 각각의 과정을 우수 학술지에의 게재가능성 제고란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1. 연구 주제의 선택

논문을 쓰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단계가 바로 여기이다. 여기서 결정된 내용은 연구자의 향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의 노력의 방향(direction)과 강도(magnitude)를 결정해주기에, 그리고 또한 여기서 결정된 연구주제는 논문의 게재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매우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또는 좋은 연구주제의 요건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준석(1984)은 연구의 필요성, 자료수집과 분석의 가능성, 소요시간의 적정성, 예상되는 연구결과의 대칭성, 연구자의 관심과 능력,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본고에서는 회계학 분야의 최우수 학술지 중의 하나인 The Accounting Review의 편집위원장이었던 Linda Bamber (2004)가 제시한 요건을 참조로 이를 발전시켜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제시한다.

1) 새로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연구개념을 개발하거나 또는 현재 인정받고 있던 인과관계와는 다른 인과관계를 제시하거나 또는 연구모형을 구축하는 것 등은 연구주제의 '새로움'(newness)과 관련된다. 이러한 주제의 연구들은 결국 기존의 인과관계 또는 이론과 모델에 대한 도전을 통해 지식체계에 공헌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Journal of Marketing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이러한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For a manuscript to be published in Journal of Marketing (JM), it must make a contribution to knowledge in marketing. It must provide new insights, new ideas, and/or new empirical results." (http://mba.vanderbilt.edu/jm/ms_evaluate.php)

물론 이러한 새로움은 그 새로움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참조: Booz, Allen, and Hamilton, 1982), 크게는 패러다임 대전환의 토대가 되는 것도 있고 작게는 부분적 인과관계의 수정과 관련된 것도 있다.

이러한 새로움은 물론 연구자의 창의력과 관련된다. 창의력은 연구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질인데,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또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과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에게는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 즉 연구대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물론 남다른 생각만으로 창의적이 될 수는 없다. 여기에는 무엇인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내야만 창의적이라고 인정받게 된다.

기존지식에 대비되는 새로움은 연구논문

의 여러 영역에서 추구될 수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인 경우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의 새로움도 추구될 수 있다.

- 측정방법의 개선 (예- 구성 (이론)개념에 대한 더 나은 측정이론과 측정항목의 개발)
- 새로운 연구방법의 적용 (예- 새로운 통계기법 또는 실험방법, 실험도구 등의 적용)
- 기존 지식의 새로운 통합 (예- 기존에 각기 다르게 수행된 연구결과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안목을 제시, 즉 A와 B의 관계에 대한 연구, B와 C의 관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C와 D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A,B,C,D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모형을 개발한 연구, 또는 A와 D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2) 흥미로움: 모든 연구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란 쉽지 않다. 때로는 기존에 밝혀진 연구개념,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을 이론적 또는 실무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상이한 상황에 적용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Parasuraman 등(1988)이 서비스 품질의 측정을 위해 SERVQUAL 척도를 개발한 논문이 위에서 언급한 새로움과 관련이 깊다면, 이와 관련하여 retail SERVQUAL을 개발한 후속의 여러 연구들 (예: Carmen, 1990; Finn and Lamb, 1991; Dabholkar, Thorpe and Rentz, 1996)은 흥미로움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지식체계를 더욱 확장 발전시키고 풍

요롭게 한다.

이와 같이 새로움이란 기존의 지식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반면, 흥미로움이란 기존의 이론과 모델을 새로운 현상 또는 변화된 상황에 적용 또는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우수 학술지에 게재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주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검토는 연구자들이 좋은 연구주제를 선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참조: Bamber and Bamber, 2004).

1) 기존 연구의 단순한 반복: 선행연구의 틀을 단순히 연구대상만 다르게 하여 반복한 연구로, 기존에 밝혀진 내용에 의미 있는 추가적인 공헌이 부족하다. 학술논문의 심사기준은 학문적 기여가 있는가이며 그 기여는 인류의 지식 한계를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공헌한바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결과와 대비되는 주목할만한 반박이나 통찰력 제시 또는 연구환경의 상이한 맥락에 대한 의미있는 해석 등의 발견점이 미약하다면 학술지에 채택되기는 힘들다.

2) 엄밀한 방법론 또는 논리를 통한 뒷받침이 없이 단순한 연구자의 주관적 생각을 나열한 논문: 우수 학술지일수록 논문에서 주장되는 내용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진실임이 입증되기를 요구한다. Journal of Marketing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For a manuscript to be published in JM, it must be based on sound evidence, whether literature review,

theory, or empirical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articles submitted for publication consideration to JM will be more theory based, more literature based, and/or more rigorously empirical relative to those articles in journals whose primary target audience is practicing managers." (http://mba.vanderbilt.edu/jm/ms_evaluate.php)

다음에 인용하는 학자들의 언급은 의미있는 연구주제의 선택과 관련하여 참고할 가치가 있다.

- “물리학에서 좌우가 대칭돼야한다는 점에 대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소립자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좌우의 힘이 달라지는 현상을 그 당시엔 ‘피즐’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 물질의 상호작용력을 집중연구, 좌우가 비대칭인 점을 이론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은 6개월간의 실험 끝에 이론으로 입증됐습니다” - 1957년 노벨상을 받은 양첸닝 박사의 포항공대에서 의 강연 중에서 (한국경제신문, 1990년 8월 21일).
- ‘아빠 없는 쥐’의 유전자 분석에 성공한 서정선 교수: “정말 좋은 과학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open question)을 답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명이 태어났는지, 왜 정자와 난자가 모두 있어야 생명이 되는지, 정자와 난자는 대체 어떻게 사람으로 크는지 같은 질문을 풀어줘야 합니다.” (조선일보, 2004년 4월 28일).

- 1981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경도대학의 후쿠이 교수는 노벨상을 받으려면 지켜야 할 6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남들이 잘하려들지 않는 분야에 도전하라. 둘째, 남들이 엉뚱하다고 여길 만큼 대담한 가설을 세워보라. 셋째,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라. 넷째, 기초이론을 중요시하라. 다섯째, 응용분야에 있어서도 늘 기초적인 이론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폭넓게 생각하는 버릇을 가져라. 여섯째,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을 허용하는 환경을 만들어라.

이상 언급된 바람직한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연구주제들에 대한 내용들은 연구자들이 연구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한편 이러한 요건들을 염두에 두고 연구주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연구자가 지닌 강점 요소들은 최종 연구주제의 선택에 있어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점은 연구방법론(e.g., archival empirical, experimental, or analytical method), 연구대상에 대한 지식, 또는 자료에 대한 접근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어떤 연구대상에 대해 남다른 실무경험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남보다 더 나은 위치에서 연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의 예로, 유통업체, 광고대행사 또는 다국적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연구자는 그렇지 않은 연구자에 비해 이러한 업종에 대한 좀 더 현실감 있는 연구주제를 도출할 수 있고

실증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나타난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좀 더 상황의 이해에 바탕을 둔 현실감 있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좋은 연구주제의 발견과 선택은 기존의 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 대상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연구자의 창의력은 같은 재료로부터 더욱 신선한 소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시 된다. Epstein (1997)은 잠재되어 있는 창의력을 계발하는데 다음과 같은 네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포착’ - 새로운 발상들은 의식속을 질주하듯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므로 그런 발상들을 재빨리 잡지 않으면 대부분 영영 사라져 버린다. 자신의 창의력을 계발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존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둘째, ‘도전’ - 새로운 아이디어의 흐름을 가속화하려면 스스로 실패하기 쉬운, 어려운 상황에 뛰어들어야 한다. 적절히 이용만 한다면 실패는 창조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셋째, ‘시아 넓히기’ - 아는 것이 많을수록 그리고 다양할수록 더 창의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넷째, ‘환경’ - 여러가지 자극에 둘러싸인 환경에 처함으로써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자극을 규칙적으로 바꿈으로써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연구계획안의 마련 및 검토

연구주제를 선택하였다고 해서 바로 본격적인 논문쓰기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결정된 논문주제를 바로 논문으

로 발전시켜 완성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이에 적지않은 위험이 수반된다. 이는 논문을 상당히 진행한 뒤에 당초에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논문 쓰는 과정은 기업에서 하나의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과 흡사하다. 유망한 아이디어들을 창출하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이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되도록 초기에 선별하여 기각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Cooper(1993)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따라서 논문쓰기에서도 타당하다:

“New product resources are too valuable and scarce to waste. In an ideal new product process, management would be able to identify the probable winners early in the game, and focus resources on those projects. Failure rates would be kept low, misallocated resources kept to a minimum, and the return maximized.”(pp. 163-164)

따라서 본격적인 논문 쓰기의 돌입에 앞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짐으로써, 선택된 연구주제에 대한 생각을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 초기단계의 선투입 자본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연구계획안(research proposal)을 작성한다. 이 단계는 신제품 개발과정의 생각 틀로 견주어 보면 초기단계 (upfront or fuzzy front-end phase)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의 충분한 준비여부는 실제로 논문쓰기에 돌입하는 다음 단계의 기간 단축뿐 아니라 더 나은 결과물의 산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참조: Kim and Wilemon, 2002).

이 단계에서의 주요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다.

1) 두 장으로 압축한 정리

연구주제(what is the research question?)와 그러한 연구주제가 왜 중요한지(why is it important?)에 대한 연구의 전체적인 골격을 두 장으로 압축하여 정리한다. 간결하게 정리할수록 생각은 더욱 더 잘 정리된다. 필자가 아는 어떤 학자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설득적이다: “자신이 하는 연구 내용을 중학생 조카에게 5분에서 10분 사이에 쉽게 설명해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주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2) 남들의 생각 구하기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를 주변 동료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본다. 이러한 조언을 얻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만큼 과연 연구주제가 의미 있는 것인지, 이러한 성격과 유사한 연구가 이미 어딘가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연구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혼자서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을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할 기회를 갖게 된다. 운이 좋다면 뜻하지 않았던 좋은 아이디어가 남들과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떠오르기도 한다.

한편 여러 차례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논

평을 받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자신의 반박 논리를 전개하다 보면 생각은 더욱 정교하게 정리되고 또 명료해진다. 더불어 앞에서 언급한 두 장 정도의 분량이면 시간을 내주기 어려운 동료에게 협조를 구하기 쉽다.

3) 목표로 하는 학술지에 대한 검토

논문준비의 초기단계부터 향후 게재하고자 하는 학술지를 선택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어떤 학술지를 염두에 두고 논문을 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논문준비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리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 타겟으로 하는 학술지의 심사기준에 대한 지식은 본격적인 논문쓰기 과정에 있어서 좋은 지침을 제시해주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심사기준(Evaluation criteria for manuscripts)에 대한 내용은 각 학술지의 홈페이지 (예: Journal of Marketing의 경우엔 다음의 주소 - <http://mba.vanderbilt.edu/jm/>)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처음부터 논문을 준비한다면 좀더 이에 적합한 논문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각 학술지의 편집방침(editorial policy)과 투고요령(manuscript guideline, style sheet)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참고문헌 표기법은 학술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유념해야 나중에 다시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연구자가 채택한 연구주제가 향후 기고하고자 하는 타겟 학술지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학술지의 목차를 훑

어봄으로써 어떠한 주제의 연구들이 최근 수행되어 왔고 또한 그러한 일련의 연구 흐름은 어떠한 발전을 지향하는지를 알 수 있다. 연구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연구주제가 이러한 학술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학술지의 연구동향을 정리한 논문(예: 김용준 등, 1999)은 이러한 노력을 절감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3. 본격적인 논문 쓰기

이 단계는 신제품 개발과정에서의 개발단계(product development stage)와 같다. 즉 초기단계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단계이다.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발견되는 현상은, 따라서 여기에서도 발견된다. 그 중 하나가, 초기 단계의 성공적 수행여부가 후속 단계의 성공적 수행여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Kim and Wilemon, 2002).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우수한 연구주제의 선택과 연구 설계가, 실제 그것을 구현하는 논문쓰기 단계에서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여 평범한 논문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초기에는 평범한 연구주제였지만 실제 논문 쓰는 과정에서 충실한 노력을 기울여 무척 우수한 논문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논문의 완성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과정이 바로 여기이고 또 그 운명이 바뀔 가능성도 존재하는 곳이 바로 여기이므로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논문 쓰기의 과정은 주제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모든 논문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피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논문이 따르는 체계, 즉 논문의 도입부, 선행연구에 대한 정리, 연구방법론, 그리고 해석과 결론이라는 골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이러한 각 구성단계 모두 그 내용이 우수 학술지에의 채택여부에 주요 관건이 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일 점은 논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것의 표현과 형식도 논문의 학술지 채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연구논문 전반에 걸쳐 연구자의 생각이 쉽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서술되어야 한다. 간결하고 명쾌하게 의사전달을 할수록 논문의 심사자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고 학술지에 게재된 다음에도 독자들은 연구자의 생각에 쉽게 빠져들 수 있게 된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 간결하게 정곡을 찌르는 표현의 중요성은 Nonaka와 Takeuchi(1995)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 “연구자의 생각과 이미지를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본질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글을 쓰는 행위는 암묵지(implicit knowledge)를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변환시키는 적극적인 활동이다.” (Nonaka and Takeuchi, 1995).

아래에서는 본격적인 논문쓰기를 다음의 네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특히 우수 학

술지에의 채택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점으로 각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1) 논문의 도입부 (Introduction and motivation)

이 부분은 논문의 도입부로서 여기서는 본 연구의 주제는 무엇인지, 그 연구주제를 왜 연구하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서술된다. 여기서는 또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이러한 연구결과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된다.

심사자가 연구논문을 처음 접하게 되는 부분, 따라서 첫인상을 결정해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다. 논문의 도입부는 아마도 심사자들이 가장 열심히 보게 되는 부분일 것이다 (아래의 글 참조).

- 경제이론에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이드가 생각해낸 8대 20의 법칙이 있다. 이를테면 100명의 세일즈맨이 올린 매출을 100%라고 하면, 그 매출의 80%를 올린 것은 세일에 능란한 상위 20%의 세일즈맨이 올리고 나머지 20%의 매출고를 80%의 세일즈맨이 올린다는 것이다. 세일즈 세계뿐 아니라 적지않은 세상이 이 파레이드의 법칙에 준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도 보도하고 싶은 총내용의 80%를 전반 20%에 몰아 쓰는 것이 관례다. 그래서 첫머리 20% 분량만 읽어도 내용의 80%를 알게되며 또 편집하면서 뒷부분이 잘려나가도 뉴스를 전달하는데 별로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 (조선일보, 이규태코너, 1994년 6월 8일).

대부분의 심사자들은 논문에 대한 평가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상당부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논문의 다음 부분을 읽게 될 때 하나의 후광효과(halo effect)로도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무척 중요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이 글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도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가 의미 있음을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서술해야 한다.

2) 이론적 배경에 대한 고찰 (Prior Research)

여기서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는 부분이다. 언급할 가치가 있는 선행연구를 빼놓지 않고 정리하는 것은 따라서 매우 중요하다. 논문을 심사할 때, 심사자는 여기서 연구자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적절하게 고르는 안목이 있는지, 최신 연구의 흐름까지 그 궤적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인접 학문 분야에 대해서도 폭 넓게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평가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부분에서 언급하는 기존의 연구들과 지금 연구자가 하고자 하는 연구간의 유기적 연결관계이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본 연구주제와 무관하게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기존 연구들의 공헌점과 문제점 등은 본 연구의 가설 도출 및 연구 방법론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3) 연구방법론 (Research Design)

여기서는 연구자의 주장을 검증하는데 필

요한 자료는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료는 어떻게 분석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하게 된다. 만약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과 분석 방법이 적절한 것이란 것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이전까지 잘 끌어왔던 논지는 흐려지게 되고, 연구자가 어떠한 연구결과를 산출하더라도 그 결과에 신빙성을 갖기는 어렵다. 물론 이는 결국 논문게재의 기각으로 귀결될 것이다.

심사자들은 연구자가 채택한 연구방법이 연구주제의 검증에 가장 알맞은 것인지, 즉 효과적이었고 또 효율적이었는지의 여부에 심사의 초점을 맞춘다. 특히 연구방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심사자일수록 특히 이 부분에 많은 심사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을 선택하고 왜 이러한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는가에 대해 설득력 있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너무 교과서적으로 자세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후속 연구가 이러한 연구방법을 반복할 수 있을 만큼의 충실한 자료는 제공하여야 한다.

4)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Results)

분석결과 나타난 연구결과는 연구자가 세상에 새롭게 알리고자 하는 연구의 최종 결과물이다. 외생변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또는 통제하지 못했거나, 결과해석이 모호하거나 또는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연구자가 세운 연구모델이 현실을 설명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는 연구결과를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

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설검증 논문의 경우에 있어서, 자료의 분석 결과가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연구자가 어떻게 대처하는 가는 논문의 채택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석을 통해 나온 연구결과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표(table) 또는 그림(figure)을 많이 사용하는데, 연구내용을 간결하면서도 함축성있게 요약한 표나 그림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웅변적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매우 많은 결과물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고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 모두를 버리지 않고 논문에 표현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독자들이 연구자의 핵심적인 논지를 짜임새 있게 이해하는 것을 돕기위해서는 주요 발견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주요 논의의 전개와 관련 없는 내용들은 부록(appendix)으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상 논문쓰기의 주요 과정을 중심으로 언급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들을 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의 모든 준비와 실행 과정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전 단계의 과정이 충실하게 수행될수록 그

다음 단계의 성과가 좋아지고 또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다.

둘째, 논문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 즉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가설설정,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해석 등은 서로 엮물려서 전개되어야 한다. 즉 나열식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러한 내용들 모두가 하나의 중심주제를 중심으로 서로 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문장, 하나의 작은 연구자료도 전체적으로 엮물려 있을 때 짜임새 있게 읽혀지게 된다. 좋은 논문을 읽으면 생각이 명료하게 잘 정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논문을 읽으면 자주 산만해져서 결국 연구자의 논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좋은 논문일수록 전체적으로 잘 짜여진 소설처럼, 모든 문장과 연구결과는 연구의 주요 주제(the main message)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연구자는 필요하다면 문장론에서 거론되는 수미상관식, 복선 등의 기법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

4. 학술지에의 게재 신청

연구논문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학술지에의 게재 신청을 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학술지에 게재 신청하는 것은 실제 논문 쓰는 노력에 비하면 매우 적은 시간과 노력만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 대한 설익은 준비는 자칫 그동안 애써 작성한 논문의 게재를 예정보다 늦추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심하면 게재의 실패를 가져오게 하기도 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들은 연구자가 완성

된 논문을 최종적으로 게재 신청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들이다.

1)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인 면에서 가능한 완성도가 높은 논문을 처음에 보내는 것이 좋다. 나중에 심사자의 지적을 받아 고치기 보다는 처음부터 문제점을 가능한 적게 하여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가능한 여러 번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글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여러 번 읽고 고치다 보면 글의 전개순서, 논리의 흐름은 점점 더 좋아지기 마련이다.
- 논문의 형식적인 면에서 실수가 없도록 완벽을 기한다 (참조: Turabian, 1973). 잘못된 철자, 일관성 없는 글씨 크기 또는 서식, 참고문헌 양식 등은 글의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논문의 완성도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어 내용까지도 불성실할 것으로 지각하게 만든다.

2) 연구논문을 쓰는 초기의 준비단계에서 주변동료들에게 연구계획안의 검토를 의뢰한 것처럼, 완성된 논문에 대해서도 학술지에 기고하기 전에 논평을 부탁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가능하다면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논문 발표의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다. 또한 학회에 참석하여 논문발표를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인데, 이는 다수의 우수한 청중들로부터 양질의 논평을 가장 빠른 시간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 연구의 경우에는 시야가 좁아질 수 있

으므로 제3자 입장에서의 지적은 매우 쓸모가 많다.

3) 목표로 하는 학술지의 논문들을 읽어 보면서, 연구의 깊이, 폭, 엄밀함 등에 있어서 기존에 학술지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과 자신의 연구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부족한지를 검토해본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이제 어느 정도 논문이 완성되어 바깥으로 내보낼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제는 학술지에 기고신청을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기를 권한다.

1) 연구논문이 게재되기에 가장 적합한 학술지를 선택하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학술지의 성격에 따라 새로운 이론적 발견을 선호하는 것도 있지만, 응용된 연구를 선호하는 것도 있다. 또한 엄밀한 방법론, 실험 또는 수학적 연구방법이 사용된 것을 선호하는 학술지도 있지만, 연구방법의 정밀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영관리적 접근의 연구논문을 선호하는 학술지도 있다. 또한 보편적 연구결과를 선호하는 학술지도 있는 반면에 특정지역 또는 특정계층에 초점을 맞춘 학술지도 있다. 물론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특정 학술지를 염두에 두고 논문을 진행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산출된 연구결과는 초기의 목적과 다를 수도 있고 또한 연구의 의미있는 발견점이 어떤 특정 학술지에 게재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최종적 검토는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다수의 연구자들이 선택하여 연구된 주제에 대한 논문은 게재가능성이 높지 않다. 심사 경험에 비춰볼 때,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까지 서비스품질을 다룬 논문에 대한 심사의뢰가 많았었는데 이런 경우 심사자 입장에서 보면 상호 비교를 하게 되고 또한 주제의 참신성이 떨어지기에 기각률이 높게 된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누구나 그리는 개(dog)를 그리려 한다면 기존에 나온 여럿의 개 그림들보다 훨씬 더 잘 그려야만 인정받게 된다. 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개를 그렸기에 더 높은 잣대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반면에 누구나 쉽게 그리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하였던 공룡이나 개털의 숨구멍 등을 그린다면 인정받기가 좀 더 수월할 것이다.

2) 더 높은 수준의 학술지를 공략한다 (Aim High).

필자가 아는 어떤 학자 - 그는 기각률이 높기로 유명한 Journal of Finance에 여러 편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다. 완성된 논문의 수준이 어느 일정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첫째, 뜻하지 않게 채택되면 그 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이고 둘째, 비록 기각되더라도 질적으로 우수한 심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기에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수 학술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사위원의 선정도 엄격하고 심사보고서에 들이는 정성도 크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논문이 학

술지에 최종적으로 게재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감수해야 한다. 즉 우수 학술지일수록 심사과정 자체도 길지만, 만약 여기서 기각된다면 다른 학술지에 게재 시도를 다시금 해야 하기에 그만큼 논문이 게재되기까지의 시간은 오래 걸리게 된다.

Ⅲ. 논문 심사결과를 받고 난 다음의 과정

학술지에 제출된 논문은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심사가 진행된다면 그 심사결과가 일정 기간후에 연구자에게 통보 된다 (참조: 한국마케팅 학회의 “마케팅연구 편집방침.” 마케팅연구 (2003), 18(4), 146-148).

게재신청하고 심사결과를 받기까지의 사이는 결코 짧지 않으므로 그러한 기간은 사용하기에 따라 논문의 발전을 꾀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기간을 막연하게 그냥 보내지 말고 최신의 연구문헌을 추가하고 또한 글을 계속 읽으며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뿐 아니라, 후에 심사결과를 받고 이에 대응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심사보고서를 받게 되면, 논문 작성 때와 마찬가지로 연구자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대응에도 이에 못지않은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자신의 관점이 아닌 심사자의 관점까지도 생각하여 심사 보고서에 따른 수

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심사자로서의 경험을 하게 되면 좀 더 심사자의 입장을 잘 이해해서 논문 준비도 잘하게 되고 심사자의 수정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도 잘하게 된다. 다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심사과정의 결과에 따른 대응 과정을 살펴 보겠다.

1. 논문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If Invited to Revise and Resubmit)

논문 수정이 요구되는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 일단은 연구자는 한시름 놓게 된다. 일반적으로 논문 수정이 요구된다면 60% 이상은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수정사항이 까다로워서 연구자 자신이 수정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수정하는데 논문 작성한 시간만큼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우선 여기서는 수정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신이 중요하다. 심사보고서의 지면상에 표시된 자구 그대로뿐 아니라 행간에 숨겨진 심사자의 의도와 기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Linda Bamber의 언급(2004)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 "A successful revision addresses the spirit, as well as the letter, of the review points. Show you responded to the spirit - not just the specifics of the comments"

학술대회에서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심사자의 수정 요구사항 하나 하나에 10여쪽 분량의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심사위원장을 감동시켜 그 논문을 쉽게 통과시킨 경

우도 있었다 한다.

한편 수정사항에 대한 답신과 최종 수정된 논문을 다시 학술지에 송부하는 경우에도 초기에 논문을 송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 동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적절하게 수정하였는지 그리고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일차적 수정에 대한 답신과 수정된 논문이 미흡하다면 경우에 따라 이차, 삼차의 수정 요구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초기에 성실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2. 논문채택이 거부될 경우 (If the Paper is Rejected)

이런 결과를 받게 되면 연구자는 실망감이 클 것이다. 논문에 들인 공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심적 상처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를 빠르게 추스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또 그 논문을 살리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연구자는 우선 논문이 기각된 이유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사자가 지적한 기각 사유가 정당하고 자신의 논문에 치명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논문을 포기하고 다음번의 논문 준비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대안은 다시 한번 원래의 학술지에 도전하는 것이다. 즉 심사자의 기각 사유에 대해 충분한 반박논리를 세울 수 있다

면, 그러한 논리를 상세하게 정리하여 편집 위원장에게 보낸다. 물론 이 경우 연구자의 논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심사과정을 다시 밟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대안을 채택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대안은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이다. 다른 학술지란 원래의 학술지보다 한단계 수준이 낮은 학술지일수도 있지만 같은 수준의 다른 편집 방침을 가진 학술지일수도 있다. 주지하다시피 학술지는 그 설립 취지에 따라 논문의 기각률도 다르고 게재되는 논문의 주제도 다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즉 비록 다른 학술지일지라도 심사자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고쳐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같은 이유로 기각될 수도 있다.

논문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 논문이 반드시 의미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수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모두 우수하고 여타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기각되더라도 자신의 논문에 어떤 공헌점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기에 적합한 학술지를 찾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수 논문을 쓰는 연구자는 항상 좋은 논문만을 쓰고 기각되는 논문을 쓰는 연구자는 항상 보잘 것 없는 논문을 쓰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글 참조).

- “취업을 위해 3류 건달과 위장 결혼한 중국 여성 파이란의 비운의 삶과 사랑 이야기를 그린 영화 ‘파이란’은 2001

년 한국 영화가 낳은 걸작이다. 단언컨대 정서적 울림으로 치자면 이만한 영화 만나기 힘들다. ‘철도원’의 인기 작가 아사다 지로의 원작 단편을 각색했다는데, 어떻게 그런 울림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다. 그것도 졸작 ‘카라’(1999)의 감독(송해성)이 연출했다는데 말이다. 절대 추천. ★★★★★(5개 만점).” (“포인트 주말영화,” 조선일보, 2004년 6월 26일).

- 우리가 잘 아는 홈런타자 베이브루스, 또는 이만수는 홈런 못지않게 누구보다 많은 삼진 아웃을 당했다.

연구자는 흔히 자기 논문을 기각한 심사자에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심사자가 그러한 기각결정을 내리게 한 원인은 결국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차분히 잘못된 원인을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윈스턴 처칠의 다음과 같은 일화는 생각해볼 만하다.

- “뿔만 한 그림” - 어느 날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에게 한 중년 화가가 찾아왔다. 다소 거만해 보이는 그 화가는 처칠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자마자 다짜고짜로 자신의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이 미술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는 얼마 전 글래스고에서 열린 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하고는 당연히 입상하리라 믿었다가 보기 좋게 낙선하고 만 것이다. “혼신을 다해 그린 제 그림이 어이없게도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보기엔 심사 위원들이 하나같이

그림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좋은 작품을 가려내겠습니까? 이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각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하는 중에도 그는 화가 나서 계속해서 씩씩거렸다. 그러나 중년 화가의 말을 듣고 난 처칠 수상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것 참 안됐군요. 하지만 나는 평생 그림 한 장 그려 보지 못한 사람이 심사 위원이 된다 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래 세상이란 정상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마찬가지로 심사가 잘못됐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한번도 달걀을 낳아 보지 못했지만, 어떤 달걀이 싱싱한 것인지를 잘 구별해 낸답니다.” 처칠은 화가의 얼굴을 힐끗 바라보며 한마디 덧붙여 말했다. “어떤 심사 위원이 보더라도 뽕뽕만한 멋진 그림을 그리도록 노력하지 그러시오?”

IV. 토론 및 결론

이상 본 고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연구자들이 우수 학술지를 염두에 두고 논문을 준비할 때 하나의 지침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항에서는 다음의 두가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우선, 논문을 준비하고 게재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 지금까지 본 고에서 주로 다룬 내용들은 특정한 개별 논문의 완성과 게재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면 -

여기서는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구에 중요시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다. 그런 다음, 논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적인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를 마무리 하겠다.

1) 논문쓰기의 경험곡선(experience curve) 효과

논문 작성과 기고 그리고 심사결과를 받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정신적 노력이 들지만,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의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연구자는 이러한 경험을 쌓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쌓인 경험은 후속 연구의 수행에 좀 더 나은 과정을 밝게하고 짧은 시간에 더 나은 성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논문쓰기는 경험곡선의 효과(참조: Ghemawat, 1985)가 큰 영역으로 평가된다.

2) 심사보고서의 유용성

심사자의 의견은 연구자의 당해 연구의 향상뿐 아니라 연구자의 안목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소중한 논평이므로 이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결과 못지않은 과정의 중요성

논문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쓰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이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 가속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래의 글 참조).

- 논문을 순조롭게 쓰지 못할 경우 보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논문을 결국 완성시키지 못한다는데 있다. 설사 논문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완성시켰다 하더라도 연구주제는 이미 관련분야에서 뒤떨어진 것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논문을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힘들여 쓸 경우에는 미래의 연구생활에 여러가지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 (김준석, 1984).

4) 공동 연구의 강점

우수 학술지에 논문을 여러 번 발표한 사람과의 공동 연구는 논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게재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공동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 자체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학습의 장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를 잡기 어렵다면 우수 학술지에 논문을 여러 번 발표한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도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본 고의 서두에서 언급된 바 있는 양첸닝은 독창적인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고 전개하는 창조적 과학자인 동시에 다른 학자들이 창조적 이론작업을 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른바 '과학 정치가'로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 (참조: 시사저널, 1990년 7월 19일, "창조적 과학자를 키워야 한다," 44-45쪽). 여기서 '과학 정치가'란 누구보다 예민하고 예리한 지적 이해력을 갖고 있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단번에 더 잘 알아듣고 격려하고 또 새로운 자극을 준다. 과학 정치가는 훌륭한 선생이자 리더이다. 양첸닝의 경우 젊은 연구인의

창의적 자질을 단번에 꿰뚫어보고 훌륭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자유분방한 지적분위기를 마련하는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과학 정치가적 능력이 있는 연구자와 공동작업을 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행운일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행운만 가지고는 안된다. 노력도 이에 못지않게 필요한데, 연구업적이 매우 뛰어난 어떤 중국인 교수는 자신은 우수한 학자를 남보다 먼저 알아채는 안목이 있고 또한 그러한 학자들을 발견하면 '꼭 잡는 능력'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피력한 바 있다.

5) 논문 쓰는 방법 자체에 대한 연구

실제 여러 번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이더라도 연구논문 쓰기의 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어떠한 단계에 더 많은 힘을 어떻게 기울일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어떠한 단계에 그동안 소홀하였는지를 깨닫게 된다. 또한 이러한 지식과 경험은 향후 새롭게 연구논문을 쓰고자 하는 후학들을 지도하는데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한편 논문 쓰는 과정도 하나의 의사소통이고 따라서 마케팅 관리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마케팅에서 개발된 여러 이론과 기법들은 논문쓰기에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신제품 개발과정에 대한 이론과 기법은 논문 쓰는 과정의 관리에 활용될 여지가 매우 높다.

6) 연구 집필동기의 중요성

논문을 쓰는 동기는 그 크기뿐 아니라 내

용도 중요하다. 동기의 크기는 주로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결정된다. 물론 동기가 클수록 논문에 대한 정성도 커질 것이고 완성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고려할 점은 동기의 내용인데, 즉 개인의 내적 욕구에 의한 동기부여는 한가지 연구가 끝나도 다음번에 계속 발휘될 가능성이 있지만 외부환경에 의해 촉발된 동기부여는 한번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다시금 그러한 동기부여가 생기기 어렵다는 점이다. 학문적 열정의 지속은 결국 개인의 내적 욕구에 의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1996년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이었던 한영희는 “한국 신석기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 연구주체의 미정립”이란 기고문에서 자신이 몸담은 고고학계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 “고고학계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학문에 눈을 뜨고 이제부터 연구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야 할 40대 전후의 계층들 상당수가 학문적 조로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과도한 대외업무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학문연구의 공백현상, 되풀이되는 공백으로 인한 연구분위기의 상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젊었을 때 갖고 있었던 학문적 열정마저 잃게 돼 학문외적 관심에 더욱 몰두해가는 보상심리를 갖게 된다.” (박물관 신문, 1996년 11월).

7) 연구 환경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좋은 연구결과와 산출은 이를 주도하는 연구자뿐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환경요소

는 연구자가 좋은 논문을 쓰게 하는 토대가 될 뿐 아니라, 훌륭한 연구자의 육성에도 토양이 된다. 1965년 노벨물리학상을 탄 미국의 화인만은 브라질의 어떤 대학에 교환교수로 가있을 때 브라질 교육의 맹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지적은 브라질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 “브라질에서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이 교육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선 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공부를 하게되고 그때그때 시험을 통과하여 학위를 받고 선생, 또는 교수가 된 다음에 역시 다음 세대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만 한다. 다음 세대 역시 그렇게 반복한다. 그러는 동안에 진짜 물리학은 수업내용에서 빠져버린 꼴이 되었다” (참조: 시사저널, 1990년 7월 19일, “창조적 괴짜를 키워야 한다,” 44-45쪽).

연구자는 물론 자기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기에 여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주변의 호의적 여건은 이러한 개인의 노력을 배가시킬 뿐 아니라 그러한 원천이 되는 연구자의 안목을 혁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되고 또 관리되어야 한다. 일본의 학사원장 - 우리나라로 하면 학술원 회장 - 나가쿠라 사부로와 다음과 같은 언급은 주변 환경요소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중요한 것은 재능있는 젊은 두뇌를 일찍 발굴해서 그들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후배들이 선배의 독단이나 권위에

늘려 새로운 실험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서는 위대한 발견이나 발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1949년 일본인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유카와 히데키를 비롯 해서 그동안 노벨상을 수상한 일본인 과학자 대부분은 20~30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 니다” (조선일보, 2004년 5월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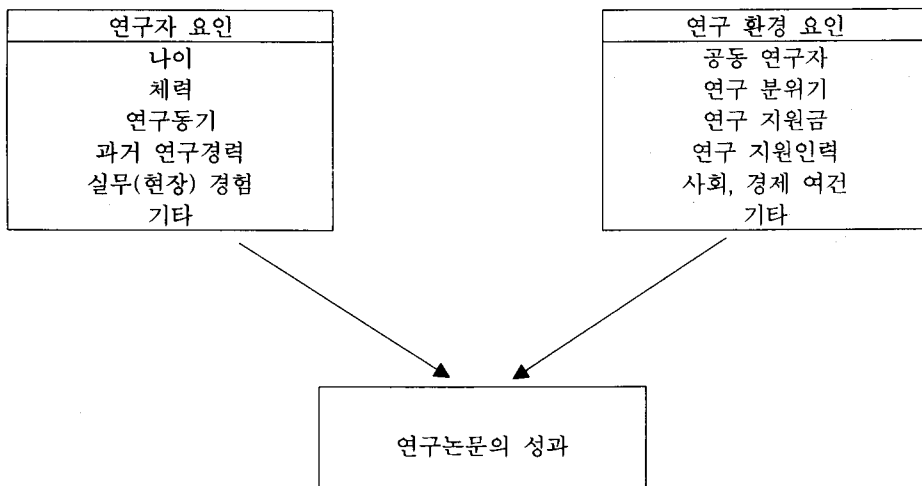
이상 본고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개념적 모형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제시하는 개념적 모형은, 연구논문의 성과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그러한 요인들은 크게 연구자 본인과 연구 여건으로 나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직간접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함량이 부족한 어떤 영향요소의 존재는 전체의 성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이 모형에서 제시하는 요인들의

영향력은 그 자체가 하나하나의 연구가설이 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러한 관계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논문 쓰기에 대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념적 모형의 한 구성요소인 ‘연구자의 나이’에 대한 다음의 내용은 이러한 영향 관계에 대해 시사해준다.

- “하버드 과학자들 노화-뇌기능 관계 입증”: 40대에 접어들면서 기억력과 두뇌 회전이 예전만 못해졌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단지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임이 밝혀졌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자들은 2004년 6월 9일 발간된 과학전문지 네이처에서 40대 이후 두뇌 노화와 유전자간의 관계를 입증해냈다. 이에 따르면, 26세부터 106세 사이의 사망자 30 명으로부터 추출한 뇌조직을 조사한 결과 40세 이상 조직 일부에서 주목할 현상이 나타났다. 손상된 뇌세포의 회복

<그림 1> 연구논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개념적 모형



과 관련된 핵심 유전자의 기능 저하가 발견됐다. 30대말의 뇌조직 일부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즉 인간은 40세를 전후로 해서 뇌세포의 회복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하버드의대 신경과학과의 브루스 A 안크너 교수는 "뇌기능 저하에는 환경, 생활방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면서, 나이가 반드시 두뇌력 저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노화와 뇌기능의 유전적 측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2004년 6월 10일).

이상 본 고에서 제시한 내용들과 <그림 1>에서 제시한 개념적 모형은 우수 학술지에의 논문 게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일 점은 이러한 내용들은 논문이 게재되는 학술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마케팅 학계의 풍토와 여건에, 북미지역의 학술지의 경우에는 북미 학계의 풍토와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연구주제, 방법론, 투고 및 수정 요령은 따라서 이러한 환경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그 게재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환경 특성을 살펴보면 - 물론 우리나라 마케팅 학계의 특성을 정의내리는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이지만 - 연구층이 얇은데서 오는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의 협소성과 연구분야가 다양하지 못한데서 오는 특정 연구주제의 쏠림과 유행 현상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겠다. 물론 논문의 질적 내용이 국내 및 국외 학술지의 가장 기본적인 심사 기준임에는 변화가 없지만, 학술지가 출간되는 지역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게재확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중 하나라고 지적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용준, 임양환, 박세환, 백수경, 정상호 (1999), "한국 마케팅 연구 논문의 분류와 분석: 1971-1998," *마케팅연구*, 14(2), 147-173.
- 김준석(1984), "학위논문의 체계적 작성법," *연세경영연구*, 11-23.
- Bamber, Linda and Michael Bamber (2004), "Publishing Your Research: Two (Former) Editors' Perspectives,"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국제세미나*, 2004년 4월 29일, 서울.
- Booz, Allen, and Hamilton (1982), *New Product Management for the 1980s*, New York.
- Campbell, John P., Richard L. Daft and Charles L. Hulin (1982), *What to Study: Generating and Developing Research Questions*, London: Sage Publications.
- Carmen, James M. (1990), "Consumer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An Assessment of the SERVQUAL Dimension," *Journal of Retailing*, 66, 33-55.
- Cooper, Robert G. (1993), *Winning at*

- New Products: Accelerating from Idea to Launch* (2nd Ed.),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Dabholkar, Pratibha A., Dayle I. Thorpe and Joseph O. Rentz (1996), "A Measure of Service Quality for Retail Store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4(1), 3-16.
- Epstein, R. (1997), "창의력을 계발하려면," 리더스 다이제스트, 1997년 4월, 65-68.
- Finn, David W. and Charles W. Lamb (1991), "An Evaluation of the SERVQUAL Scales in a Retailing Setting," I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edited by R. Solomon and M. R. Solomon, 483-490. Provo, UT: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 Ghemawat, Pankaj (1985), "Building Strategy on the Experience Curve," *Harvard Business Review*, 63(2), 143-149.
- Kim, Jongbae and David Wilemon (2002), "Strategic Issues in Managing Innovation's Fuzzy Front-End," *European Journal of Innovation Management*, 5(1), 27-39.
- Miller, Delbert C. (1983), *Handbook of Research Design and Social Measurement* (4th Ed.), New York: Longman Inc.
- Nonaka, Ikujiro and Hirotaka Takeuchi (1995), *The Knowledge-Creating Company: How Japanese Companies Create the Dynamics of Innov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rasuraman, A., Valarie A. Zeithaml and Leonard L. Berry (1988), "SERVQUAL: A Multiple-Item Scale for Measuring Consumer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Retailing*, 64(1), 12-40.
- Stone, Eugene F. (1977), *Research Methods in Organizational Behavior*, Santa Monica: Goodyear Publishing Company.
- Turabian, Kate L. (1973),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4th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Improving Likelihood of Publication: A Review of the Process

Kim, Jong Bae^{*}

In order to successfully develop papers and have them published in notable academic journals, researchers need to be fully informed and prepared regarding the challenges publication of papers present. This study focuses on approaches for improving likelihood of publication. It first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papers and then addresses the importance of successful revisions after the review process. It then identifies several factors which can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papers. Finally, it concludes by offering severa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papers as well a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research questions,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Management, Dankook University.